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마련하라”

광주혁신추진위 광주시에 권고 영유아기~중노년기 4대 주기별 조기진단·관리체계 등 16개 과제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중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는 최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해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 하는 시민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의 조기진단과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교육·고용·복지 연계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유지 및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으로, 영유아기와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4대 주기에 따른 16개 혁신과제다.
영유아기에는 장애 조기진단을 위해 모든 영유아에 대해 건강검진 시행을 의무화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장애특성 문진항목을 추가해 정밀검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장애 전반기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보호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의 관계형성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학령기에는 방과 후와 방학기간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학생들의 사회 적응 및 진로 선택을 돕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상담 및 교육내용 등이 직업훈련 및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로지도부터 능력개발 및 평가, 일 경험, 취업지원이 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청장년기와 중노년기에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도입,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삶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정서행동 장애인에 대한 단기 돌봄과 입원치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주치의제를 도입, 중노년기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여가 활동 지원, 장애인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등도 제안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조심하세요”

광주 쫄쫄가무시증 환자 늘어 긴 옷 착용·기피제 사용 당부

광주시는 17일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산,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쫄쫄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광주시 쫄쫄가무시증 환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이 증가했다. 특히 털진드기는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80%가 발생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긴 소매와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린 뒤 활동해야 하며, 귀가 시에는 옷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물리 자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광주시 북지건강국장은 "쫄쫄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력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행안부 17개 광역지자체 평가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등 호평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도 국민안전교육 실태 점검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은 지자체 등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실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중앙과 시·도를 점검하고, 시 점검단은 5개 자치구를 점검해 중앙점검단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

진됐다. 점검단은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56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안전체험관 체험프로그램 확충(6종→10종)과 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시민안전교육센터' 구축 추진, 맞춤형 1대1 안전교육 실시,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에 공유하고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개선점을 마련, 2022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은 시민이 알고 실천하는 만큼 지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 쉽게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녹색교통 활성화 위한 현장탐방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중심사입구역 양림동 펜타마를 일대에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빛고을대중교통네트워크 관계자 등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장탐방'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도시철도 역 인근 명소를 자전거로 탐방하고, 도시철도와 자전거 연계 도로 정비 등 교통시설을 비롯한 시설물 보강 방안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소음 피해보상,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서·남·북·광산구 일부 지역 해당 11월10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음을 제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맞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소음영향도 확정에 앞서 추진한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15일부터 11월10일(토·

일요일 포함)까지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6만3000여 명이며, 소음대책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동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kmnoise.samwoonc.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이 적용된다.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에서 안내하며, 신청은 2022년 1-2월 중 거주지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9일부터 3주간 국지도 49호선 정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9일부터 3주간 자동차전용도로인 국지도 49호선(빛가람정성로) 광주 관리 구간(남구 승촌동-광산구 오산동) 23km 구간의 도로환경 일제정비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덤프트럭, 굴삭기, 스kid로더 등 장비 7대와 도로 보수원 25명을 투입해 도로포장 파손·요철 및 포트홀 보수, 도로변 잡목제거 및 풀베기 등을 진행한다.
시는 또 해당 도로 외에도 수시 점검하고 정비해

광주시 '2021 인문포럼' 27일부터 이틀간 전일빌딩

광주시는 "올해 인문주간(10월 넷째주)을 맞아 27일부터 이틀간 전일빌딩 245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인문지리 환경을 살펴보는 '2021 인문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터무니(터잡은 자취)로 읽는 빛고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문포럼은 지역의 가치를 형성한 산과 강, 자연을 이해하고 시민의 인문지리적 사고 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인문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강연자와 청중 간 토론이 활발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대면은 인문도시광주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비대면 참여는 별도의 신청없이 행사 당일 유튜브 '인문도시광주'나 인문도시광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인문학 형성의 근본인 자연과 지리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인문과 생태 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